



내 손안의 작은 기부플랫폼

서로도움

서로e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서구 '서로도움'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해요

2020~2021년
지원 규모

총 모금액 **32,887,197**원
참여인원 **3,328**명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진행



모금방식

일시기부 : 유형별, 테마별
모금사업 진행



모금기간

'21.11.23.(화) ~
'22.1.20.(목)(59일)



기부방법

지역화폐(캐시백, 충전금)를
통한 기부

? 서로도움 기부방법

STEP 1

'서로e음' 앱 접속



STEP 2

화면 내 '서로도움' 클릭



STEP 3

진행 중 기부리스트 중 기부하고 싶은 사연 선택



STEP 4

'기부하기' 클릭



STEP 5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항 확인 및 동의 체크



STEP 6

기부 완료 후 '기부 활동내역'에서
나의 기부내역 확인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 032-560-5886



서로이음길 10코스 「세어도」



GREEN 서구 GREAT 구민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서구 자랑하기

커피를 마실 땐 항상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소비하는 MZ세대답게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갖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환경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홍보대사로서
‘국제환경도시 서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도 저와 함께해주세요.

국제환경도시 서구 홍보대사
배우 김영대

국제환경도시, 서구 파이팅!



스마트폰으로 정보 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면 <GREEN 서구>의
주요 기사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세어도는 서구 유일의 섬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체만으로 삶
의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나도 또 다시 찾아오는
12월처럼, 발길 닿는 대로 걸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섬 여행의 별
난 재미를 느껴보세요.

Vol. 300 December 2021

발행일 2021년 11월 25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편집 홍보정책담당관
주소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전화 032-560-4148
팩스 032-560-2709
홈페이지 www.seo.incheon.kr
편집위원 김기동, 김병섭, 김수연, 백영순, 이은경, 유덕기, 정영희, 김이경
기획·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GREEN 서구>는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 04 [300호 특집] 축하해, 서구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06 [300호 특집] 고마워, 서구
GREEN 서구 300호 발간 기념
구민이 전하는 메시지
- 10 [300호 특집] 서구 실록
서구의 대표 홍보물 <GREEN 서구>, 25년 변천사
- 14 [300호 특집] 만나고 싶었습니다
<GREEN 서구>는 사람을 믿고
- 16 [300호 특집] 그뻐 그랬지
서구의 지난 날을 기억하다
- 20 서구 포커스
기다리던 우리의 일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 22 로드투어
로봇랜드로를 가다
- 24 서구 관심퀴즈
퀴즈로 풀어보는 서구 주요 정책
- 26 의정소식
서구의회 주요소식
- 28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주요소식
- 29 우리동네
청라3동 이야기
- 30 생생서구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 정보
- 35 문화 전망대
온·오프라인 문화 정보
- 36 서구의 기자단
청소년 명예기자단 취재기사
- 38 독자마당
서구 신춘문예
- 39 독자이벤트
특별한 날을 축하합니다

< GREEN 서구 > 3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서구와 서구민의 희로애락을 녹여내며 구정 소식을 대변해온 <GREEN 서구>가 창간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96년 11월 1일 '서구구정신문' 창간호를 시작으로 어느새 3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GREEN 서구>가 쉽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자양분이 돼주신 55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서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감동의 시간들이 우리 구정소식지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연령층이 공감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소식지로 키워냈습니다. 한 호 한 호에 담긴 이야기가 모두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내 고장 소식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의 과거를 함께 추억하고, 현재의 가치를 공유하며, 행복한 미래를 같이 꿈꾸는 소식지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GREEN 서구>를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사랑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서구지부장 김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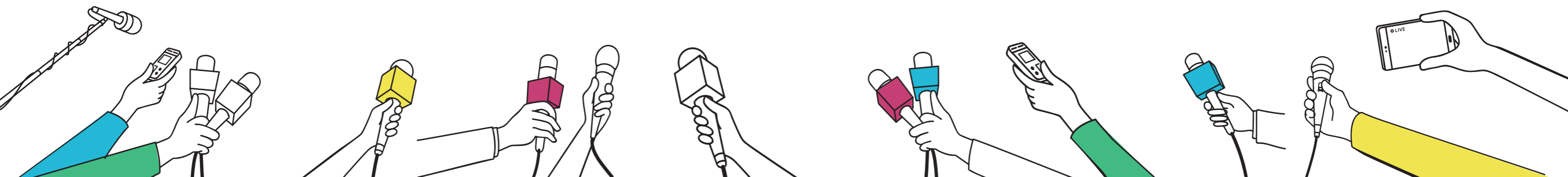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서구 700여 통장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GREEN 서구>는 서구 행복소식 알리미로서 서구의 주요 시책과 홍보 사항을 구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유용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담아 누구나 손쉽게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네 소식을 귀담아듣고 서구의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구정 소식지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춘규

서구의 다양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GREEN 서구> 창간 25주년 및 300호 발간을 55만 서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GREEN 서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홍보가 기성 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만큼 <GREEN 서구> 또한 이를 활용해 구민과 생생하게 소통하는 소식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의회도 개원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서구발전을 선도하는 자세를 갖고 구민 행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소식지 <GREEN 서구> 창간 25주년 및 300호를 축하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김학엽

2021년 12월,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GREEN 서구>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각종 구정 소식을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소식지 내 다양한 코너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 재미와 감동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2021년 서구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다양한 주민자치회 소식이 게재되길 바랍니다.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구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소식지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응원 메시지

고마워, 서구!

※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GREEN 서구> 300호 특집호 발간 기념 독자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11월 24일 <GREEN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GREEN 서구> 300호 특집호 발간을 기념하여 독자이벤트가 진행됐다. 독자이벤트는 에세이(나와 서구의 인연), 사진(300일 기념과 연관된 결혼, 출산, 연애 등/구독인증 샷), 응원메시지 및 바라는 점 등 3개 분야 모집이 이뤄졌다. 기념일에 특별함을 더한 덕분에 이번 독자이벤트는 수많은 구민이 축하 인사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진필님(00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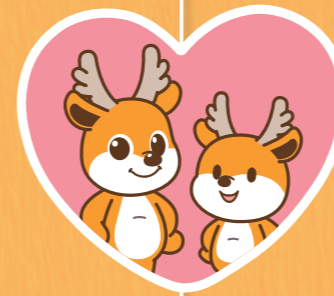
7년 전, 서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서부터 GREEN 서구를 구독했습니다. 이제는 애인 같이 발행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소식지 안에는 구민에게 필요한 알찬 정보가 많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소식과 명소소개, 독자이벤트는 저희 가족의 든든한 추억거리가 되어줍니다. 300호 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는 GREEN 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수자님(0506) ♥

매달 신문지 소식을 나누던 때가 옛그제 같은데 이제는 예쁜 책자로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독할 수 있어 서구를 손 안에서 볼 수 있고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모두의 수고와 서구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로 노력하는 구정사업은 금방 표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함께 해왔기에 다른 지자체의 표본이 되어 리드해 가는 것을 볼 때 서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 늘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 구민과 하나 되어 참여하게 되고 더 서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다은님(7674) ♥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예코 컬러링에 참여하면서 점차 GREEN 서구에 실린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드투어 내용 중 소개된 가게를 직접 가보면서 내가 사는 동네나 주변만을 다니는 편이었는데 서구의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300호뿐만 아니라 400호, 500호를 목표로 계속 서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공유해 나가며 유익하고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유민님(41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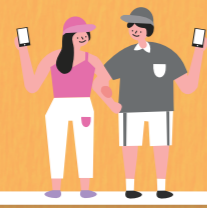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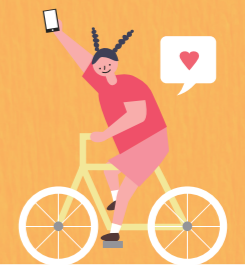
무료한 일상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GREEN 서구!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소식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000호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명명화님(4073) ♥

GREEN 서구가 벌써 300호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 이것 저것 찾아보기 어렵지만, GREEN 서구 덕분에 내 집 앞에서 쉽게 서구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쁜 표지 덕분에 모으는 재미도 생겼네요. 서구라는 곳이 참 넓어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GREEN 서구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워질 서구만큼 함께 성장할 GREEN 서구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정필재님(6512) ♥

서구는 나와 깊은 인연이 있다. 아내와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이제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앞으로도 노후를 보내게 될 서구. 나와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서구를 소망해본다.



노시한님(8596) ♥

GREEN 서구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더욱 더 많이 했음 좋겠고요. 창간 25주년 축하합니다~

이지우님(6654) ♥

서구의 역사가 GREEN 서구에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우우우~ 응원합니다.

윤준영님(3073) ♥

GREEN 서구 3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300호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독자들의 삶도 GREEN 서구로 풍성해졌으리라 믿어요!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에세이 부문

서구라는 동네의 따스함

글. 이재영



EVENT Vol. 300



퇴근길. 딱 그 시간 즈음 지하철이 지상으로 잠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석양이 세상을 머금고 있다가 어둠이 세상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는 걸 목격하고 나면, 늘 그랬듯 사색에 잠기곤 한다. 지금의 집에 살게 된 4년 전, 세탁기 한 대를 배달해 주시던 아저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돈을 버는 집이 있고, 돈을 쓰는 집이 있지요. 돈 잘 벌고 사세요.”

대화의 맥락에 전혀 상관없이 던지시 건네었던 뱃살 두둑한 배송기사님의 덕담 한 마디에, 나는 그만 살짝 당황해서 무어라 답을 해야 할 지 모른 채 은근 슬쩍 웃고 넘어가 버렸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 정도 덕담을 던져주던 그 기사님이 새삼 따뜻한 심성이라 느껴지게 된다.

지하철 라인을 따라 인천 서구로 들어온 것도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빌라 계단에 심드렁하게 놓여져 있던 서구 잡지 뒤 권에 적힌 ‘300호 기념’ 문구를 보고 있자니 나 또한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산 지도 꽤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서구에 살았던 지난 십여 년이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 몇 번 있었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직도 힘겨운 시간을 다들 잘 버티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지난 십 년을 돌이켜 보니, 이 집에 이사 오면서 들었던 세탁기 배송기사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다. 내게 인천 서구란 곳은.

- 사연 중 일부 발췌 -



사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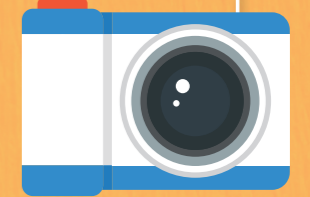
김현아님(7674)

매달 아파트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소식지를 출퇴근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는데 매달 바뀌는 표지가 눈에 들어오더니 어느덧 매달 챙겨보는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역사와 현재를 사는 우리 이웃들을 연결해 주고 딸과 함께 색칠하며 동심에도 빠져보며 퀴즈 참여를 통해 재미와 설렘까지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GREEN 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알찬 내용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서구가 되는데 늘 함께합니다.



황대원님(6565)

21년 1월 1일 인천 서구에서 태어나 우리 GREEN 서구에 소식을 남긴게 어제같은데 벌써 300일이 되었어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황채아’. GREEN 서구 300호와 아기 300일을 기념해서 처음 시작인 90년대 모습으로 서구 대표 환경생태공원(드림파크)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300일을 맞아 피크닉도 다녀왔답니다!



독자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지호님(9535)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엄마(아내)가 뱃속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연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벌써 설이(태명)를 품은지 300일이 되었네. 엄마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10개월(300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는데 벌써 설이를 곧 만날 생각에 엄마는 너무 설레고 기대된단다~ 물론 출산의 고통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설이를 만나기 위해 받는 고통보다 앞으로 설이와 함께 살아갈 나날들을 생각하면 행복감이 더 앞서서구나. 설이를 위해 설이가 입을 예쁜 옷을 빨래하고 집도 청소하고 준비하는 매일 매일이 너무 즐겁단다. 설아~ 아빠랑 같이 인천을 돌아다니면서 뱃속에 있는 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공원에서 예쁜 사진도 찍었는데. 나중에 설이가 크면 이 사진을 보여줄게. 사랑하고 축복해 설아~

西區實錄

서구실록

서구의 대표 홍보물 <GREEN 서구>, 25년 변천사

때는 1990년대, 전국 각지에서는 시장·구청소식 홍보를 위한 책자들이 하나 둘 출현한다. 이른바 시장·구청소식지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책자전성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서구 역시도 1996년 백성들을 위한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는 곧 오늘의 <GREEN 서구>의 태동을 알리는 전조였다.

그 후 <GREEN 서구>는 199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서구만의 색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2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형태(신문형에서 책자형)의 변화부터 표지 및 제호까지, <GREEN 서구> 변천사를 이곳에 기록해본다.

GREEN 서구 창간호



1996

1996년 11월 1일 <서구구정신문>이라는 이름의 서구 구정소식지 제1호(창간호)가 탄생했다.

1998 ~ 2000

제22호부터 서구 상징문장(휘장)이 교체되어 발행됐다. 이 휘장은 서구의 상징물인 가지와 인천의 어질 인(仁)자를 합해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바뀐 휘장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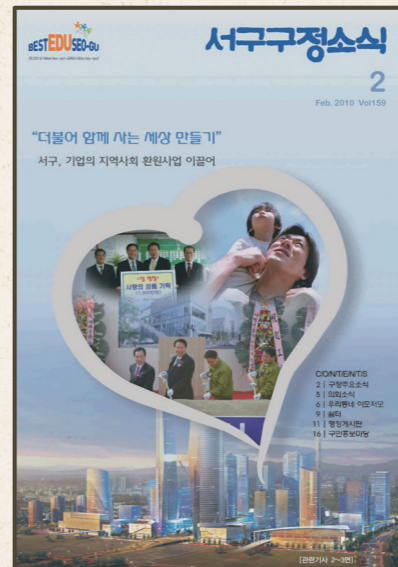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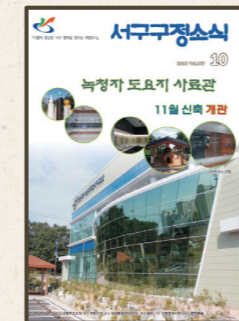
제38호에서는 기존 <서구구정신문>이라는 이름에서 <서구구정소식>이라는 제호로 변경됐으며, 제호에 쓰인 서체 또한 기존 딱딱한 톤에서 부드러운 서체로 변경하여 구정소식지의 포근함과 친근감을 부여했다.



2000

2001

2010



2010 ~ 2011

제159호부터는 기존 메인기사 형식의 표지가 아닌, 사진과 적절한 아트웍을 통한 표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2

제183호에서는 표지에 처음으로 모바일을 통해 서구구정소식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등장했다.



2001 ~ 2005

제59호에서는 현재까지도 서구의 대표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이 등장했다. 서구의 '서(西)',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동(動)'에서 따온 이름 서동이는 서에 번쩍, 동에 번쩍 늘 주민에게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동생인 '동동이'와 함께 서구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제100호에서는 표지에 목차를 게재하여 전반적인 구정소식지의 친절감을 부여했다.

2014

제207호부터는 기존 <서구구정소식>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서구의 구정철학이 담긴 <GREEN 서구> 제호로 변경됐다. 이 제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6 ~ 2018

제233호부터 제261호까지의 <GREEN 서구>는 다양한 폰트와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디자인 변화의 시기였다.



2020

제279호부터는 기존 제한된 프레임을 통한 표지에서와이드한 이미지를 적용시킨 표지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표지를 구현했다.



2014 ~ 2016 ~ 2019 ~ 2020 ~ 2021



2019

2019년 2월 1일, 제266호부터는 기존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의 변화가 이뤄졌다. 이는 디자인의 다양성과, 가독성, 그리고 구정소식지의 소장용까지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제270호부터는 서구의 제1기 청소년 명예기자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제271호를 시작으로 <GREEN 서구>에 청소년 명예기자단 기사가 본격적으로 게재됐다.



2021

제290호부터는 이미지 위주의 표지형식에서 벗어나 서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새로운 형식의 삽화표지를 선보였다.



모바일소식지 바로가기

+ 제277호부터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GREEN 서구>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됐다.



Vol. 300호 오디오북 바로가기

또한 읽어주는 오디오북 기능을 더해 <GREEN 서구> 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도 녹여냈다.



GREEN 서구는 사람을 살고

GREEN 서구를 만드는 이들을 만나다

첫 창간호부터 300호 특집호를 발간하기까지 2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안에는 <GREEN 서구>와 함께해준 이들의 노고가 깊이 스며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매달, 매해 더 나은 구정소식지를 탄생시킨다. 오늘의 <GREEN 서구> 제작의 주축, 편집위원들과 청소년 명예기자단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들어보자.



김기동 부위원장



유덕기 위원



이은경 위원



김병섭 위원



백영순 위원



김이경 위원



정영희 위원



김수연 위원



청라중 김가은



마전중 황유찬



초은고 이세영



마전중 김도희



청라중 양지우



청라초 서아열

○ 편집위원회

○ 김기동 부위원장

<GREEN 서구>는 우리 서구의 대표 소식지로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에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정된 지면과 매체의 특성상 제한적이지만, 구정과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연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섭 위원

서구와 주민을 잇는 소통매개체인 <GREEN 서구>는 서구와 우리 주민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한 오늘의 기록이며 때론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쉽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영희 위원

서구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으로 편집위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가치가 더 많은 주민에게 오롯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주민에게 사랑받는 구정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 명예기자단

* 청라중 김가은

내 고장의 따뜻한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주민을 위한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전중 김도희

명예기자단 활동이 끝날때까지 더욱 발전된 글로 독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덕기 위원

제1회 청라국제도시 가을음악회를 계기로 인천서구 문화인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해왔던 것이 <GREEN 서구> 편집위원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문화예술 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GREEN 서구>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 백영순 위원

서구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10년가량 사보 업무를 해 온 경험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찾는 구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는 기본, 사람 사는 이야기, 서구의 소중한 가치 등이 잘 전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서구로 이사 오면서 자연스럽게 구정 소식에 관심이 생겼고, 청라3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봉사하며 '자랑스러운 서구'를 알리는 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알찬 <GREEN 서구>가 되도록 서구 곳곳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유익한 콘텐츠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 이은경 위원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서구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과 공간들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서구 사람과 공간 이야기를 소식지를 통해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 김이경 위원

서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임기 처음부터 3년 반이 넘는 시간을 <GREEN 서구>의 편집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소식지 이름에 담긴 환경을 생각하는 구정철학처럼 앞으로 우리 서구가, 또 서구민분들이 더욱 Green~! 건강, 행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서구 뉴스

NEWS

서구의 지난날을 기억하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Seogu
News

서구 뉴스-스
할 시간이잖아?

본방사수!

1996년 서구구정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GREEN 서구>는 25년째 주민의 든든한 메신저로서 소통하고 있다. 서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아내는 <GREEN 서구>는 옛 서구의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면 언제든지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기록 보관소이기도 하다. 300호를 맞이한 지금, 그동안 <GREEN 서구>가 담아낸 이야기를 확인해보자.





서구 소식지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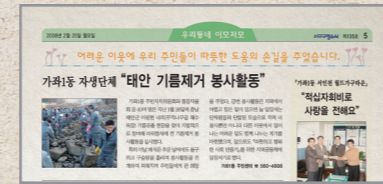
1996.11.1. #창간호

1996년 11월 1일, 서구 소식지가 '서구구정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됐다. 창간호에서는 서구문화예술제의 첫 개최를 알렸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축제는 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IMF 위기 극복에 앞장서다

1998.2.25. #16호

모두가 힘들었던 IMF 시기, 서구 역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서곳마당 10일장'을 개최했다.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며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힘썼다.



태안의 기적에 함께하다

2008.2.25. #135호

2008년 태안 기름유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봉사 행렬이 이어졌다. 서구 구민들 역시 단체로 봉사에 동참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직접 방문해 기름방제작업을 시행하거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청라동 주민센터가 들어서다

2010.5.25. #162호

2010년, 청라지구 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새 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청라동 주민센터가 개청돼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편의를 책임지기 시작했다.

서구 주경기장 첫 삽을 뜨다

2011.6.25. #175호



2011년 6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서구 주경기장에서 기공식이 진행됐다. 대회 이후에도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구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인천2호선을 개통하다

2016.6.25. #235호

인천2호선이 2016년 7월 개통됐다. 인천2호선은 서구 검단오류역을 기점으로 종점인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호선의 개통으로 인천시민, 특히 구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GREEN 서구와 서구의 역사를 한-눈에!



검단지역, 새 이름을 입다

2018.5.25. #2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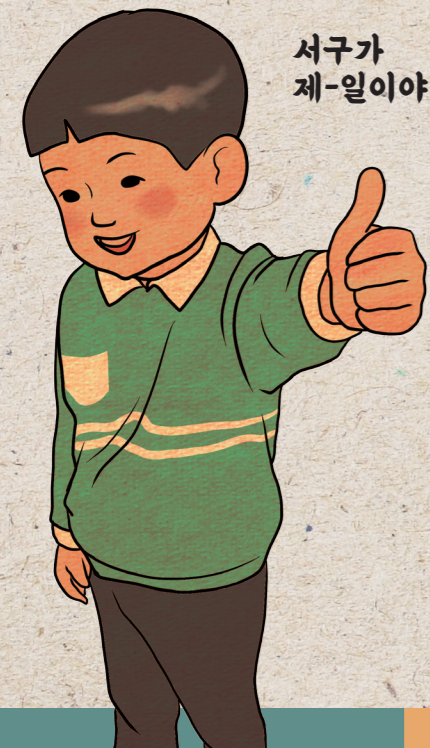
서구의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조례에 따라 2018년 7월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다. 검단1동부터 5동이 각각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으로 변경됐다.

서로e음의 탄생

2019.4.25. #269호



서구는 2019년 5월 1일, 지역화폐인 '서로e음'을 발행했다. 대국민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로e음은 서구 관내 2만 5천여 점포에서 사용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서구가 제-일이야!




온라인 소통의 시작


1997.11.10. #13호


정보화 시대를 맞은 1997년, 처음으로 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서구 홈페이지는 현재 '소통1번가'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창구로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지극히 평범해야 할 일상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되어버린 어언 2년만의 결실이다.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을 이곳에 소개한다.

	유흥시설(5종) 클럽·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클럽·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기 다 리 던 우 리 의
일상으로


안 전 하 고 완 전 한
세상으로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목적장업	밀집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경륜·경정·경마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카지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 (그 외 시설은 1주)

	스포츠 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 (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m²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 (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개인 방역 5대 수칙

-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 1. 온라인 발급 서비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2. 모바일 발급 서비스**
구글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COOV' 어플 설치 후 발급
- 3. 접종기관으로 직접 방문**
자신이 백신을 접종 받은 기관 혹은 병원으로 방문 후 직접 접종 증명서 발급

서구에는 일상회복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는 공간이 있다!?



청라블루노바홀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주소 서구 청라대로 20

- 공연장 : 지상 1~2층, 486석의 중규모 극장 (음악공연, 연극, 뮤지컬 등 전문예술 공연장)
- 전시실 : 지하 1층 전시 공간
- 카페 : 지상 2층(준비 중)
- ※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라블루노바홀 외 서구문화회관, 정서진아트큐브, 가정생활문화센터,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공연 및 전시, 축제 및 행사 소식 확인 가능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어린이 친화적 도서관
주소 서구 건지로334번길 45

- 연면적 4,473.11㎡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 놀이마루,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상상마루, 동아리실을 갖춘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
- 이용가능 서비스 : 자료대출·반납, DVD 대출·반납, 좌석 이용 인원 50% 범위 내
- ※ 정기 휴관일 : 매주 금요일

순수함 위에 놀라움이 더해지길

1 인천로봇랜드

생산과 교육, 연구가 유기적으로 혼합된 로봇산업의 중심이다. 로봇타워 1층에 조성된 홍보관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품과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홍보관에 전시된 로봇은 인천 로봇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주소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2 청라생태공원

한가롭게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공간이다.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산책로와 생태연못, 온실은 기본, 농구장과 축구장 등 편의시설도 다채롭다. 너른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좋다.

주소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38



3 노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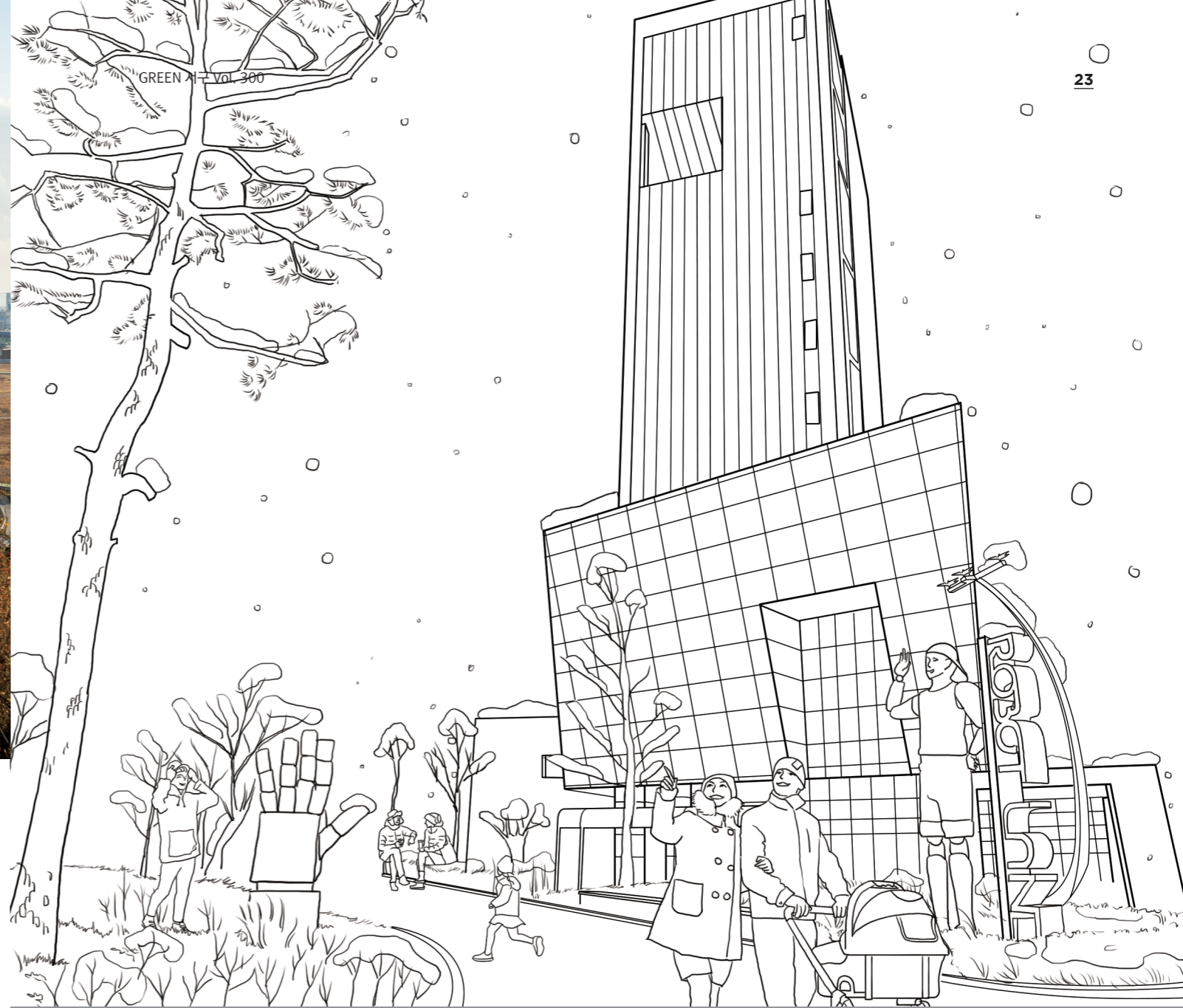
노을공원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플라자부터 도심에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팔각정자와 전망대, 여기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어린이놀이터까지 구민을 위한 섬과 여가 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이 조성돼 있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은 진풍경을 이룬다.

주소 서구 로봇랜드로 291

4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얼마 전 개장한 청라해변공원캠핑장은 총 면적 4만 377㎡로 카라반존 7면, 오토캠핑존 44면, 텐트 캠핑 14면 등 총 65면의 캠핑존을 갖추고 있다.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매점 등 공동시설과 넉넉한 주차장도 마련돼 쾌적하고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주소 서구 첨단서로 190



내가 그린 서구

<GREEN 서구> 에코 컬러링에 참여하세요!

인천로봇랜드를 여러분만의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달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매달 말일까지 발송)
마감 2021년 12월 15일(수) 보내주실 곳 greenseogu@naver.com

*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표기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GREEN 서구> 모바일북 발행 메시지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김인나(검단로)



김수현(장고개로)



정세희(서곶로)



이영현(검단로)



하유진(심곡로)

2021학년도 12월 서구 능력 평가 문제지

<교통안전 영역>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서구가 관내 각 현장에서 구민을 만나고 지역별 현안 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찾아가는 공감소통 간담회’에 나선다. 11월 10일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음길’ 추진보고회를 시작으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서구 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및 가좌2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이음길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

서구는 ‘즐겁고 안전한 롤러탈라 등곳길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가좌초, 능내초 등 4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차량 진입 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인성개선 ▲미끄럼 방지시설 ▲속도저감시설 ▲교통정온화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완한다. 서구는 이번 사업 1단계를 오는 12월 완공하고 2단계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안전이음길 사업을 위해 6월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 끝에 연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통에 적극 참여해주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 2021.11.11. 기사

1. 차량 진입 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 ① 미끄럼방지시설 ② 교통정온화시설 ③ 과속방지턱 ④ 속도저감시설

2.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조성한 길의 이름은?

- ① 행복소통길 ② 안전이음길 ③ DMZ 평화의 길 ④ 교통안전길

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서구는 이번 사업 1단계를 오는 () 완공하고 2단계는 내년 ()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내가 바로 서구 능력자! ★

서구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서구 관심퀴즈’에서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출제된 문제의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사진촬영, 또는 정답만 게재) 1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매달 말일까지 발송)

마감 2021년 12월 15일(수) 보내주실 곳 greenseogu@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문제로 풀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재미있는 서구 관심퀴즈!

<치매안심 영역>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서구가 ‘치매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서구는 지난 3일 오류왕길동 ‘행복e음리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현재 연희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행복e음리더’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안심e음터’를 관리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행복e음리더의 역할 ▲치매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서구치매안심센터는 마을 내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97곳을 치매안심e음터로 지정하고 e음터 내 관련 정보를 비치하는 등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센터를 잇는 ‘행복e음리더’ 활동을 통해 더욱 탄탄한 치매안전망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행복e음리더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일보 2021.11.05. 기사

1. 서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 동네가 아닌 곳은?

- ① 오류왕길동 ② 연희동 ③ 불로대곡동 ④ 가좌1동

2. 행복e음리더교육에서 진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이해 ② 부모와 자식의 이해
- ③ 행복e음리더의 역할 ④ 치매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안심e음터’를 관리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호 당첨자 김희란(청라커널로), 임금란(원당대로), 정동유(가정로), 선종진(마전로), 조한우(서달로), 최은희(가정로), 조해은(가남로), 나은숙(완정로), 황정이(서곶로), 김삼수(봉수대로)

지난호 정답 <환경보존 영역> 1. ① 자전거 마일리지 챌린지 / 2. ③ 바이크ON / 3. 600, 참여하기 <교통개선 영역> 1. ③ 회전교차로 / 2. ① 통과시간 단축, ④ 사고 감소 / 3. 도로개선사업

서구의회 주요소식



이의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서구의회 이의상 의원이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및 지방자치의 날(21.10.29.)'을 맞이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1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의상 의원은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서구 지역공동체협치발전연구회' 위원으로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발적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의상 의원은 "더 열심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늘 초심을 되새기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장을 수여한 송춘규 의장(인천대표회장)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구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 032-560-6851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서구의회는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순 의원이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 아프간 전쟁 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해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이슬람 수장국' 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다.

최은순 의원은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560-5863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구의회는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인갑 의원(더불어민주당·신현원창, 가정1, 2동)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인천의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수준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인천대는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공직사회 등이 함께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인갑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의대 설치와 함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인천의료원을 활용한 교육·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560-5862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해시 비교시찰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의원연구단체(대표자 김미연)'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를 방문해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비교시찰 첫째 날은 김해시 문화도시센터를 방문해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의 '고유의 문화자산 특화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 및 '다양한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서구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둘째 날은 가야의 거리, 해운사 및 분산성을 방문해 역사문화도시 김해시 시민의 삶과 맞닿은 역사적 가치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김미연 대표자는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서구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560-5863

구민의 소리

서구의회에서는 서민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의 일환으로 '구민의 소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의정홍보팀 ☎ 032-560-6852



네트즌마당
바로가기



정책제안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주요소식



청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접 만든 '사랑의고추장' 전달



서구 청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서운, 한명임)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50세대(3kg)에 직접 만든 고추장을 전달했다.

고추장지원사업은 청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기획사업으로, 올해도 추워지는 날씨 속에 저소득층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고추장을 만들고 포장하여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안부를 살피며 전달하는 등 찾아가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고추장을 받은 어르신은 “해마다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전달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3642

가좌2동

주민자치회, 김치 만들어 독거노인 등 22가정에 전달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회(회장 오귀남)가 지역 내 독거노인 등 22가정에 김치를 만들어 배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주민자치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나눔은 가까이, 반찬 봉사' 사업은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는 매월 1회 꾸준히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반찬봉사 활동은 가좌2동이 서구 최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으로 매월 20여 세대에 김치와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 직접 배달까지 한다.

오귀남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이웃에 따뜻한 반찬과 함께 안부를 물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과 함께하는 가좌2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5160

연희동

오병이어봉사단 '금쪽이'의 생일음식키트 전달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상이)는 오병이어봉사단(단장 김선숙)으로부터 생일을 맞은 연희동 아동을 위한 '생일음식키트'를 전달받았다.

봉사단은 아동에게 생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 매월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음식을 저소득 계층 10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김선숙 봉사단장은 “아이의 생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가족이 모여 함께 촛불을 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하루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이 연희동장은 “후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연희동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3560

석남1동

자유총연맹, 주민 안전을 위한 방역봉사활동 실시



서구 석남1동 자유총연맹(회장 안정자)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내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화장실, 의자, 운동기구는 물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가게 출입문 손잡이 등 작은 위험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내 가족, 우리 동네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작은 행복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방역봉사를 실시하는 자유총연맹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에 최혜정 석남1동장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던 방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하루빨리 지역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3864

청라3동 우리동네 이야기

환경을 지키는 클린넷 이야기

청라국제도시의 클린넷은 편리하면서도 늘 깨끗한 동네를 유지토록 하는 쓰레기 수거 장치다. 하지만 한동안 클린넷은 빈번한 장치 고장 및 가득찬 20ℓ 봉투를 넣을 수 없는 투입구와 주민들의 무관심이 더해져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공간이 됐다. 이에 청라3동 주민들은 클린넷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현재 클린넷 주변은 더 이상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 아닌, 아름다운 화단을 벗 삼아 우리동네의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이요한 주무관

쓰레기전쟁터에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까지

수개월 전, 청라의 자동집하시설(이하 클린넷) 주변은 매일 반복되는 쓰레기와 전쟁이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의 노력으로 유난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 클린넷을 참고삼아 마을 변화에 관심 있는 기업과 함께 상가주택 클린넷 주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던 몇몇 클린넷에 화분을 놓고 단체원과 주민과 한국서부발전 관내 기업체와 함께 꽃을 식재했다. 주변 상인들이 물을 주고 화분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클린넷 주변 환경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다른 클린넷 주변 주민들도 동참해 집 안에 있던 화분을 하나 둘 가져다 두기 시작했다. 또 다른 클린넷 주변에도 화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청라3동은 공원녹지과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기부받은 크고 작은 다양한 화분에 계절 초화를 심어 상가주택 클린넷 많은 구역에 화단을 조성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무단투기는 완연하게 줄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드는 청라3동의 내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관내 환경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질 것이고 그 욕구 충족은 관의 힘만이 아닌 민·관이 함께 해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청라3동은 매달 기업과 주민들이 함께 클린업데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서도 클린넷 화단 조성을 사업으로 정하는 등 청라3동 관내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클린 서구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보건·복지 소식



서구보건소 보건 소식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지역주민 알코올 중독예방 상담

대상 서구 주민 누구나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방법 전화 및 내소상담
내용 알코올중독 자가검진(AUDIT-K), 심층상담, 교육, 병원원 치료 연계 등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032-718-0625
 - 카카오톡 채널 신청 :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 홈페이지 신청 : www.ismhc.co.kr (온라인 상담)
문의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32-718-0625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종합지원(연중)

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내용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실종예방 인식표 제공 :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의류에 부착
- QR팔찌 제공 : 밴드형 손목 팔찌로 QR코드에 보호자 연락처 등록
- 손목형GPS배회감지기 제공 : 보호자 핸드폰과 연동하여 위치 추적관리
- 지문 사전등록 : 경찰청과 연동하여 지문등록

장소 서구치매안심센터 (서구 봉오재3로 94번길 11, MK타워 5층)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 (물품수급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문의 치매정신돌봄과 치매지원팀 ☎ 032-718-0642

공공심야약국 운영(연중)

내용 365일 심야 시간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
대상 성모약국
 서구 원창로 174, 102~103호 (신현동, 남송프라자)
 ☎ 032-583-6083
운영시간 22시 ~ 익일 3시까지
문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32-718-0424

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무료)

대상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
운영 평일 09:00 ~ 18:00
장소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서구 탁옥로 39, 3층)
내용 금연전문상담사의 1:1 맞춤 상담, 니코틴의존도 평가 및 니코틴패치(보조제) 제공, 폐기능·일산화탄소·폐활량 검사 실시(코로나19로 잠정중단), 성공기념품 증정(금연 3개월, 6개월 성공자)
예약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 온라인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참여소식 → 금연상담예약 → 상담신청
 - 전화 : ☎ 032-718-0524~7
문의 서구보건소 금연지원팀 ☎ 032-718-0523

서구청 복지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



2021년 제4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언택트 축제 개최

일시 2021. 12. 18.(토) 13:00 ~ 18:00
장소 서구청 대회의실
대상 아동, 부모, 지역주민 등
개최방법 언택트 축제 ※ 유튜브 '서구TV' 생방송
주요내용 - 내가 뽑는 서구의 재능자랑장인! 청소년 재능경연대회
 · 유튜브 서구TV 온라인 투표(조희수, 맛글, 줄아오 등) 60% + 전문 심사위원 투표 40%
 · (본선) 12. 7. ~ 12. 12. 유튜브 서구TV 사전영상 공개 / (결선) 12. 18 현장 경연(상위 5개팀)
 - 함께 만들어봐요! D.I.Y 체험키트 (선착순 사전신청)
 · 행복을 담은 천연비누 만들기/서동이 앙말 인형 만들기/내가 만드는 우드락 미니어처 '무야호 마을'
 - 아동축제기획단의 피땀눈물로 만들어진 다양한 쌍방향 콘텐츠
 - 축제 홈페이지(http://ajuhang4.com)를 통해서 만나보는 톡톡 튀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등등
문의 아동행복과 아동친화정책팀 ☎ 032-560-6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모집

구분	연령	요금(시간당)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36개월	10,040원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12세	10,040원 (기본형)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13,050원 (종합형)	일반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세탁물, 청소, 설거지 등)

※ 요금은 양육공백 발생 사유 및 가구별 소득수준, 아동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정부지원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5. 제공기관 확인 및 연락
 6. 돌봄 선생님 파견

문의 (이용가정 정부지원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비 채용)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 032-265-2621

2021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기획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1. 11. 8.(월) ~ 2022. 2. 28.(월) (4개월)

지원대상	위기사유	지원금액
사례관리 대상가구	동(洞)/구(區) 사례관리대상자로 신규 선정된 가구	신청기간내 1회한 20만 원
서비스연계 대상가구	거주지 관리비 내역에 전기료, 가스비가 2개월 이상 체납이 확인되는 가구	20만 원 범위내 체납액
공과금 체납가구	거주지의 전기료·가스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전·단가스가 우려되는 가구	20만 원 범위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액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추천서(공통),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불가)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32-560-5586

개인·가족상담 안내(무료, 누구나)

기간 연중 ※ 월-금 9시~18시 / 수요일 야간 18시~21시 / 토요일 9시~12시
장소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내용 개인 및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모래·놀이치료 등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화상상담 등)
문의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례팀 ☎ 032-569-1547

인천 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산·입양 축하금	'19.7.1.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50만 원 ※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출산축하용품비 30만 원 ※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9.7.1.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필히 지참
문의 가정교육과 여성가족팀 ☎ 032-560-5738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대여대상 - 다중이용시설(숙박업소, 영화관, 병원, 상가, 식당, 노래방 등) 민간화장실 소유자 및 관리자
 -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
 - 개인(구민 전체)
대여기간 5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대여장비 1개소 당 1세트 (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
대여방법 전화 신청 후, 방문 대여(신분증 지참)
문의 가정교육과 여성가족팀 ☎ 032-560-5739

생활정보



서구청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1. 12. 16. ~ 2021. 12. 31.

납세의무자 2021. 12. 1.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소유자

※ 2021년 연세액 선납, 6월 일시납 차량(경차, 영업용화물차 등) 제외

납부방법 자동차세(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은행 자동화기기 : 은행CD/ATM기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
- ② 인터넷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천시 이택스
- ③ 전화 ARS : ☎1599-7200, ☎1661-7200
- ④ 모바일 :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 ⑤ 고지서 :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개정내용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합자동차 13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안전신문고(앱)를 통한 주민신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의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내용 2021. 12. 25. 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단독주택 ※ 공동주택은 20.12.25.부터 시행 중

제도시행 전	제도시행 후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따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는 공동·단독주택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문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560-1932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제 안내

운영기간 2020. 8. 10. ~ 종료시점 미정(코로나19 상황 고려)

감면대상 서구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18개소 이용 고객

※ 서구 관내에서 당일 2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 지참

감면기준 당일 소비금액 2만 원 이상이면 1시간 무료 주차

※ 영수증 인정기준 : 당일 사용 영수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서구 관내)가능 영업장에서 발행한 영수증, 소비영수증 2개 이상인 경우 금액합산 인정, 주차요금 감면을 받은 영수증은 재사용 불가

※ 감면요금제 적용시간
- 24시간 운영 주차장(11개소) : 9시~22시
- 주간 운영(9~19시) 주차장(7개소) : 9시~17시

유의사항 - 당일 주차요금 미납 차량은 미적용
- 타 감면과 중복감면 미적용
- 시간제주차·일일주차를 하는 경우만 감면 적용 ※ 월정주차 제외
문의 서구시설관리공단 ☎ 032-580-1170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 ☎ 032-560-1962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연중)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전화 번호만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parkingsms.incheon.go.kr) 또는 방문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문의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2021 정서진 해넘이 축제」 개최

개최일 2021. 12. 31.(금)

개최장소 미정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주요내용 해넘이 실시간 중계, 시민을 위로하는 문화공연 등

참여방법 현장 관람 (12월 중 사전신청 모집)

온라인 관람 (유튜브 '서구TV' 생중계)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 ☎ 032-560-5933



일자리 소식



서구청 일자리 소식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



기업지원정책 안내와 기업 워라밸 컨설팅 실시 안내

컨설팅 내용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정책, 근로자 채용 관련 제도, 노무 및 세무 상담, 기업 워라밸 정책

컨설팅방법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의 방문 컨설팅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서구청·고용노동부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e-mail) autumntree88@naver.com
(fax) 032-429-7111

문의 인천경영자총협회 ☎ 032-428-8050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이전 안내

이전주소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프러스 빌딩 4~8층 (원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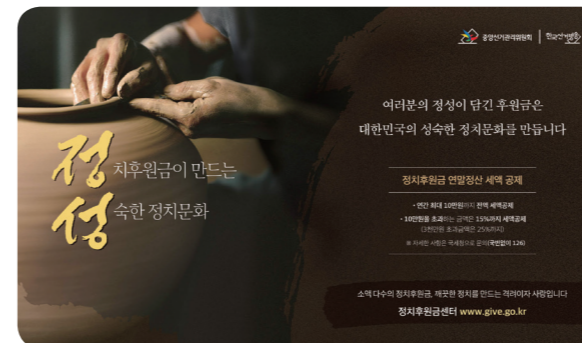
관할지역 인천 서구, 인천 강화군

해당업무 취업지원,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지원, 외국인고용허가

오시는길 - (버스 이용 시) 30번, 78번, 841번, 308번, 급행 97번, 1002번, 광역 1100번, 광역 1101번, 광역 9802번
- (인천 2호선 지하철 이용 시) 완정역 하차 → 1번 출구 → 완정사거리 버스정류장 버스 30번, 급행 97번 승차 → 바리미마을 정류장 하차

문의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 032-540-2001

선거관리위원회 캠페인



구인구직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영동금속(주)	경서동	주물 생산직	08:00 ~ 17:00	시 8,720원
창영목재	원창동	목재 생산직	08:00 ~ 16:30	월 230만 원
(주)유에스씨	백석동	창고관리	08:30 ~ 18:30	연 2,600-만 원
(주)경원목재	가좌동	경리사무원	08:30 ~ 17:30	월 185만 원
노블레스 요양원	오류동	간호조무사	09:00 ~ 18:00	월 190-210만 원
한울씨푸드	가좌동	웹디자인	09:00 ~ 17:00	시 9,000원
경인에코텍	오류동	집게차 기사	06:00 ~ 16:00	연 4,500만 원
(주)정광산업	왕길동	포장생산직	08:00 ~ 17:00	월 190만 원
경일산업	원창동	인쇄가공부	08:30 ~ 17:30	월 250-320만 원
(주)한국커피몰류	원창동	배송/영업직	08:00 ~ 18:00	연 3,200만 원
주식회사 추리본	가좌동	현장설치기사	09:00 ~ 18:00	월 200-300만 원
(주)동우프론테크	왕길동	영업관리	08:00 ~ 17:00	연 2,500만 원
반딧불요양원	석남동	시설 요양보호사	09:00 ~ 18:00	월 200만 원
주식회사 강성기업	금곡동	프레스 가공원	08:30 ~ 17:30	월 220만 원
(주)영풍정공	오류동	와이어컷팅기 기술자	08:30 ~ 18:00	월 230-300만 원
벨엘요양원	마전동	시설 요양보호사	09:00 ~ 18:00	월 205만 원
(주)태광후레임	왕길동	철재가구 배송·설치기사	08:00 ~ 17:00	월 250만 원
정목가구(주)	원창동	가구조립, 포장원 채용	08:00 ~ 17:00	시 9,500원
인혜요양원	심곡동	주방조리원	09:00 ~ 18:00	월 183만 원
우경인더스트리	오류동	프레스 생산원	08:00 ~ 17:00	시 8,720원

※ 업체 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구인정보는 10월 18일자로 접수된 정보이며 이미 마감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032-560-5809

2022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2021년 11월 말 ~12월 초(예정)

근무기간 2022년 1~12월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모집인원 100명 (전일제 36명, 시간제 20명, 복지일자리 44명)

근무내용 행정도우미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2-560-4314

11월 22일, 새로운 변화를 만나보세요

소통1번가 PLUS



QR코드 찍고 자세히 만나보기



말로하는 보이스봇



내게맞는 혜택찾기



원스톱 치매관리



생활정보 한방체크



인천광역시 서구

12월

문화전망대

Culture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6823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9579 검암도서관 ☎ 032-565-1610 검단도서관 ☎ 032-561-4117 석남도서관 ☎ 032-575-2600 심곡도서관 ☎ 032-568-0133 신석도서관 ☎ 032-571-9457 서구문화재단 ☎ 032-567-1160 엘림아트센터 ☎ 032-289-4275			1 청라국제도서관 '눈썹 세는 날' 그림책 원화 전시 12월 한달간 로비(2층) 검단도서관 송년행사 제6회 '12월, 당신의 도서관' 11. 30.(화) ~ 12. 5.(일) 검단도서관, 온라인(ZOOM)	2 2021년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12. 2.(목) ~ 12. 9.(목) 10:00~18:00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3 제12회 서구립 풍물단 정기연주회 12. 3.(금) 19:30 석남도서관 2층 열림터 및 가정생활문화센터 전석 무료	4 석남도서관 '12월 키워드석남 초성퀴즈' 12. 1.(수) ~ 12. 31.(금) 석남도서관 2층 열림터 및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대상: 청소년 및 성인
5	6	7 검암도서관 송년행사 제5회 '우리들의 따뜻한 도서관' 12. 7.(화) ~ 12. 12.(일) 검암도서관 심곡도서관 송년행사 제7회 '연말 꽃 도서관' 12. 7.(화) ~ 12. 12.(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8 신석도서관 '그림책으로 만나는 사계절' 12. 7.(화) ~ 12. 10.(금) 15:00 ~ 16:30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대상: 초등 1~3학년	9 2021 서구가 갤러리 아트페어 12. 8.(수) ~ 12. 19.(일) 10:00 ~ 18:00 정서진아트큐브	10	11 청라국제도서관 '그림동화 영어 스토리텔링' 12. 11.(토) 10:00~11:00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대상: 7세 ~ 9세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겨울이야기 12. 11.(토) 16:00 청라블루노바를
12	13	14 인천예술고 INART 양상블 음악 연주회 12. 14.(화) 19:00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 12. 7.(화)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5 2021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작품 전시회 12. 15.(수) ~ 12. 22.(수) 10:00 ~ 18:00 갤러리 '나무, 맑고 푸른 환경 전시회 12. 15.(수) ~ 12. 22.(수) 10:00 ~ 18:00 갤러리 '다숨,	16 용알스 년별별 퍼포먼스 12. 16.(목) 19:00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 12. 9.(화)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7	18
19	20	21 제19회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날개를 펼쳐라' 12. 21.(화) 19:30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무료	22	23	24	25 성탄절 HAPPY CHRISTMAS
26	27	28	29 검암도서관 '심리야 살롱, 문학을 활용한 알아차림의 시간' 12. 29.(수) 19:00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대상: 청소년, 성인	30	31 2021 정서진 해넘이 축제 12. 31.(금) 현장 및 온라인 관람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라호수·국제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달력에 표기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구의 기자단

서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명예기자단의 원고를 받아 진행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GREEN 서구

해원초등학교 천세현



1996년 11월 1일, 첫 호가 발간된 'GREEN 서구'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구의 이야기를 전하고 서구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마침내 2021년 12월에 300호 발간을 맞게 되었다.

2021년 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열거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매월 우리 서구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소식지에 내 글이 실린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집 엘리베이터 수북이 쌓인 소식지가 어느새 다 사라진 모습을 보며 매우 뿌듯했고, 도서관 한 칸에 가지런히 정리된 소식지를 누군가 들고 가는 것을 볼 때면 왠지 내 책이 누군가에게 대출되는 기분도 들었다. 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서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서구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내가 몰랐던 서구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았고, 알려지지 않은 명소가 고즈넉하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특히 친환경 자원 순환도시를 자랑하는 서구에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모임들이 많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서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기자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관심을 갖지 못했을 부분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GREEN 서구 소식지는 다양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 서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소식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학교나 병원 등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요즘엔 핸드폰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정소식과 함께 GREEN 서구 소식지가 모바일 버전으로 전송해 더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기자단의 취재나 토론 등 모임 활동을 통한 활발한 소통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점차 이러한 활동을 확대시킨다면 청소년 명예기자단이 더 다양한 콘텐츠로 GREEN 서구를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을 GREEN 서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 본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코로나

청일초등학교 장서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되어가는 지금, 드디어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위드 코로나는 'With Corona'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실행하여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도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기다리던 전면 등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여러 행사들과 축제까지 허용이 되고, 제한된 모임 인원도 늘어나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위드 코로나가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코로나 초기의 상황만큼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직 초등학생들은 일부 형, 누나를 제외하면 예방접종도 받지 않았고 나는 천식이라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위드 코로나를 찬성해야 하는 것인가? 반대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의 좋은 점과 걱정스러운 부분을 정리해 보게 되었다. 서구의 많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젠 줌(Zoom)이 아닌 실시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생태관 등 시설 이용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작될 방과 후 학교도 기대가 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온 많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화면 속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 걱정이 된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는 접종자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이미 마스크를 벗은 듯한 모습이다.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 대 습격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늘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다시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자유로워진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또는 노약자나 나 같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위드 코로나의 부작용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야만 진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학교에서 방역수칙도 더 잘 지키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서 부족했던 4학년, 5학년 생활을 학교에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서	구		
신	춘	문	예

꽃물 /시

[심곡동에 사시는 정운양님]

너의 영혼이 사라지기 전에
 돌출된 내 뼈의 일부분에
 태양빛이 사라진 오늘 밤새
 깊숙이 흡수시켜
 내 뼈와 하나가 되도록 하고
 너의 아름다운 붉은빛은
 첫눈이 올 때까지
 내가 기꺼이 견디어 줄 것이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면
 서둘러 탈색이 되거라
 그리하여 너의 완전한 영혼이 되어
 훨훨 날아 가거라

좋은 글은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무뎠던 감성을 깨워줍니다.
 바쁜 일상에 마음의 양식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구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길에서 돈 줍는 법 /산문

[마전동에 사시는 이화재님]

오늘도 민석이는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한 손에는 나에게 줄 또 다른 하나를 들고 구부정한 자세로 강의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드세요’
 민석이는 자주 내게 먹을 것을 주는 중2병이 없는 착한 아이다.
 ‘민석이가 오늘 용돈 받았구나’
 ‘.....사실 오늘 학원 오다가 길에서 1,000원 주웠거든요’
 ‘와우....부러운데. 선생님은 가끔 길 가다가 천 원짜리 한 장 줍는 상상을 하거든. 그런데 한 번도 100원짜리 하나 주어본 적이 없어.’
 ‘저는 지난주에 50,000원도 주웠어요’
 그때부터 민석이는 내게 돈 줍는 방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해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땀만 보고 걷기’
 민석이의 명쾌한 해답에 내가 돈을 주워보지 못한 원인을 찾았다. 난 늘 땅바닥이 아닌 주변과 하늘을 보면서 걸었던 것이다. 행운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마다 경험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전화벨이 울렸다.

민석이 어머니였다.
 ‘선생님, 민석이 학원 수업 끝나고 정형외과로 바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어디가 안 좋은가요?’
 ‘목 디스크라서 요새 치료받고 있거든요’
 민석이의 구부정한 자세에 대한 해답도 찾았다. 민석이는 돈이라는 행운을 줍는 대신에 디스크라는 불행도 함께 주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민석이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석아, 돈 줍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보고 걸어. 어깨도 짹 펴고, 시선은 앞을 보고, 주변도 보고 하늘도 가끔 올려다봐. 그러면 민석이 목 디스크도 다 나을 거야. 치료 끝나고 다 나오면 선생님이 맛있는 것 사줄게.’
 우리 모두는 ‘돈’이라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걷는다. 그러다 문득, 돈은 성취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후회한다. 천천히 걷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충만해진다. 이제는 앞이 아닌 하늘과 주변을 보고 걷자.

서구 신춘문에 참여방법

시, 산문, 수필(분량 1,000자 미만) 등 구민들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 문학인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실 곳 greenseogu@naver.com 참여방법 작품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특별한 날을



‘케이크 기프티콘’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방영은(청라동)님이 아들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드디어 복직이구나!
 코로나19로 미뤄진 복직과 그로 인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우리 시원이오의 소중한 시간.
 힘들기도 했고, 또 너무 행복하기도 했던 여러 장면이 생생하다.
 이제는 이별화도 또 할거니, 할아버지화도 더 씩씩하게 잘 지내고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 멋진 아들이 되어보자!
 일과 휴식, 쉽지 않겠지만 든든한 남편과,
 큰 버팀목이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해!!! 힘내자! 이자이자 파이팅 ^____^♥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때. 사연과 함께 greenseogu@naver.com로 신청해주세요.
 <GREEN 서구>가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위해 케이크를 보내드립니다.

* 선물 받으실 분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기프티콘 사용 후 케이크와 함께 인증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사연과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